

국별 리포트

#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81천 Km <sup>2</sup>	G D P	110억 달러 (2010년)
인구	1,505만 명 (2010년)	1인당 GDP	729달러 (2010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Riel
대외정책	친서방 외교중시	환율 (달러당)	4,185 (2010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UN분류 기준 세계 최빈국으로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앙코르와트 등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과 의류산업, 건설업 등을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4%의 고도성장을 이뤘음.
- 2008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건설투자 감소,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7%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미 수출 악화로 1997년 이후 최저인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0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관광객 증가로 4.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이후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1995년 UN가입, 1999년 ASEAN가입 후 2002~03년 ASEAN 의장국을 역임하며 국격(國格)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 WTO 및 ASEM에 가입하며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두 차례의 총선을 거쳐 훈센이 단일 총리로 재임하고 있으며, 현재 훈센이 부총재로 있는 캄보디아국민당(CPP)이 제1여당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제성장률	10.2	6.7	-1.5	4.7	6.0
재정수지 / GDP	-2.9	-2.8	-8.1	-5.6	-5.3
소비자물가상승률	7.7	25.0	-0.7	4.0	6.0

자료: IMF 및 EIU.

#### □ 2005~07년 중 연평균 11.4%의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 2005년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종료로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의 국제경쟁이 심화되었으나, 미국의 대 중국 섬유제품 수입 규제로 인해 의류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5~07년 연평균 11.4%에 달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2010년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7%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에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15% 축소되었고 특히 대미 수출 악화로 100개가 넘는 섬유·봉제 공장이 폐쇄되어 이로 인한 실업자가 3만 명이 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1997년 이후 최저인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의류 및 쌀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7%까지 상승함. 2011년에는 수출 관련 제조업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사업 추진의 지연에 따라 건설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약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오랜 전쟁과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한 세수 부족, 세수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해외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음.
  - 2008년에 GDP 대비 2.9% 수준이었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2009년에는 GDP의 8.1%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 및 대외원조기관으로부터 총 9억 5,150만 달러의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았음.
  -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과 정부의 새로운 재산세 도입 및 세수행정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출(2010년 GDP 대비 17.5% 차지)로 2010년 GDP 대비 약 5.6%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재정적자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은 캄보디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1년 중 9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임금인상 억제, 리엘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 말 이후 주요 식료품가격 상승과 국제 고유가의 영향으로 급속히 상승하여 2008년에는 1997년 이후 최고인 전년 대비 25.0%를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악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실업률 상승, 쌀 가격 및 유가의 급속한 하락, 건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달러 유입 감소 등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0.7%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 2009년 하반기부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2011년에는 6%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 전망

-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 NBC)은 아직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2011년 6월 현재 12%) 인상을 통한 통화량 증가 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긴축 통화정책이 운용될 수 있으나, 캄보디아 경제는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금융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구조

- 제조업의 대부분은 봉제, 의류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성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크며, 대부분의 자본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품수출에서 의류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의류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대상국(2009년): 미국(42.4%), 싱가포르(8.8%), 독일(7.0%), 영국(6.6%) 등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도로, 전기, 용수 등 사회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이 자가 발전기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사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또한 전기료가 인근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산업용의 경우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이 적용되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전력의 40% 이상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2010년 전기보급률은 2009년의 24%에서 소폭 상승한 29%를 기록하였는데, 도시지역은 100%에 가까운 보급률을 보인 반면 외곽지역은 12.3%의 낮은 보급률을 보임.

#### □ 부정부패 심각

- 캄보디아는 세관, 세무, 행정 관련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dex: TI)가 조사한 2010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캄보디아는 총 178개국 중 154위를 기록하였음.

#### □ 숙련 노동자 확보가 어려움

-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여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일부 고급 인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산업화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임.

### 나. 성장 잠재력

#### □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 도모

- 캄보디아는 독특한 역사적 유물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라오스와의 인접한 위치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2010년 경기 회복세와 함께 상반기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 부문의 다양화를 위해 시아누크빌 중심의 해양관광 리조트 개발, 북동부의 고원지대 중심의 환경관광 개발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적 관광과 휴양을 겸한 복합적인 관광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로서, 호텔과 리조트 및 기타 위락시설이 집중된 거대 관광지로의 성장이 기대됨. 캄보디아 정부는 2006년부터 관광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 석유 생산 가시화

- 캄보디아 원유 발굴은 2002년 시추작업을 시작한 미국의 셰브론(Chevron), 일본의 미쓰이(Mitsui), 한국의 GS칼텍스 등 3자 합작 컨소시엄이 2005년 캄보디아 남부 해안 A블록에서 상당량의 원유매장을 확인하면서 본격화되었음. 현재 6개 광구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세계은행은 이 유전의 추정 매장량을 20억 배럴로 발표하였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2011년 석유 생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중이나, 기술적 문제와 인접국인 태국과의 유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실제 생산은 201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캄보디아는 석유 생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란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외교부장관인 호르 남홍(Hor Namhong)은 테헤란을 방문하여 이란 정부와 석유부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추후 석유 생산이 가시화되면 캄보디아 정부 수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다. 정책성과

##### □ 경제 개혁정책의 지속 추진

- 오랜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적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던 캄보디아는 1997년 훈센 총리가 집권한 이후 정치적 안정과 함께 강력한 경제 개혁정책 추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
- 훈센 정부는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 ① 경제성장증대, ② 고용창출, ③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 ④ 정부 효율성 증대 등의 사각정책(Rectangular Strategy)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음.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 1999년 ASEAN, 2004년 WTO에 가입한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ASEAN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
-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인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외국인투자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 총리 직속기관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의 단일창구로서 투자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진출기업이 적격투자프로젝트(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IP)의 자격을 취득하면 세제측면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외환송금에 대해 제약이 없음.
- 2010년 4월에 아파트와 사무실 빌딩 등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 상 수 지	-488	-1,051	-866	-991	-1,085
경 상 수 지 / GDP	-5.7	-9.4	-8.3	-9.0	-6.7
상 품 수 지	-1,350	-1,801	-1,574	-1,852	-2,315
수 출	4,089	4,708	4,302	5,526	6,672
수 입	5,439	6,509	5,876	7,378	8,987
외 환 보 유 액	1,807	2,291	2,744	3,150	..
총 외 채 잔 액	3,761	4,215	4,364	4,428	4,768
총외채잔액/GDP	43.5	40.7	42.0	40.3	29.6
D. S. R.	0.4	0.9	1.1	1.1	1.1

자료: IFS, EIU.



□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 지속적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지속

- 2008년까지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 및 의류부문의 호조로 양호한 수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석유제품 및 건설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음.
- 2009년 세계경기 침체 및 의류 제품의 국제 경쟁 심화로 인해 상품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전년 대비 약 8.6% 감소하였으나, 수입규모 역시 내수 부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약 9.7%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음.
- 2010년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으로 의류를 포함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28.5% 증가하였으나,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다소 확대되었음. 2011년에도 의류 수출 경쟁 심화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산업 호조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전망

- 2008년까지 관광부문의 호조로 인해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 확대 및 외국기업들의 이익금 본국 송환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음.
- 2009년 관광산업 침체에 따라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 및 소득수지 적자 규모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8.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와 소득수지 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품수지 적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의 9%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외화자산 수익 증가로 인한 소득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구조 개선

- 2009년 외국인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05년 55.8%에서 2009년 42%로 개선되었음.

- 총외채잔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GDP 대비 규모는 2010년 40.3%로 개선됨.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캄보디아국민당 집권 지속

- 2008년 7월 27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총 123개 하원의석 중 9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음.
- \* 제1야당인 삼렝시당(Sam Rainsy Party: SRP)이 26석, 왕권당인 프론티어 캄보디아(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 FUNCINPEC)이 2석, 인권당(Human Rights Party: HRP)이 3석을 차지하였음.
- 지난 2003년 총선에서 FUNCINPEC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CPP는 2008년 총선에서 전체의석의 73%를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며 캄보디아 역사상 첫 여당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치적 안정을 위해 FUNCINPEC당과의 연정을 유지하고 있음.
- 훈센 총리는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삼렝시당과 인권당이 연합하여 캄보디아국민당에 대응하는 민주변화운동당(Democratic Movement for Change)을 형성하였으나, 당분간 캄보디아국민당에 대항할만한 정치 세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훈센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

- 캄보디아 국민들은 총선 이전에도 훈센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룬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내었음. 캄보디아국민당은 이미 2007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8%가 넘는 지지를 얻은 바 있어 2008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예상되었음.

- 2009년에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독재지배 구조가 확고해지고 있으며, 2011년 1월 훈센 총리는 부패와 연루된 공직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

## □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

- 세계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국민당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위해 잇따라 명예훼손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인 캄보디아의 행정 권력에 대한 감독관리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2010년 9월에는 법원 야당인 삼렝시당의 지도자인 삼렝시(Sam Rainsy)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으며, 인권단체들과 지지자들은 삼렝시당의 국민적 인기를 누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2. 사회동향

### □ 크메르루주 국제재판 진행 중

- 30년 전에 발생한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의 대학살 혐의에 대한 크메르루주 국제재판정이 2009년 3월말 재개되었음.
-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2006년 7월 소집된 전범재판정은 당초 2009년 7월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과 재판소 직원들의 뇌물수수설, 정부의 적극성 부족, 재판 대상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음.
- 15,000명 이상이 고문을 받고 처형당한 투올슬렝 감옥의 교도소장이었던 카잉 구엑 이브(Kaing Guek Eav)는 2010년 7월 전범재판소로부터 금고 3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현재 크메르루주 정권의 핵심인사 4명이 기소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2011년 9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동 재판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3. 국제관계

#### □ 태국과의 외교적 갈등 지속

- 2008년 7월, 캄보디아-태국 간 오랜 분쟁 지역이었던 국경 부근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 대해 캄보디아가 태국 외무장관의 서명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양국의 분쟁이 격화되었음.
- 태국의 야당과 시민들은 내각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이후 태국 헌법재판소에서 태국-캄보디아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외무장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태국내 반대여론과 시위가 더욱 확대되었음.
- 국경사원 분쟁으로 태국과의 마찰이 지속되던 중 부정부패 혐의로 해외도피중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2009년 10월 캄보디아의 경제고문으로 임명되면서 양국 외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음.
-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2009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으며, 캄보디아의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음. 이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양국의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하며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는 등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

- 캄보디아는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인해 UN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주요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대테러전쟁 수행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의 정치체제 및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 없이 대규모 원조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 역시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One China' 정책을 고수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중국은 2010년 중 캄보디아의 420만 달러 규모 채무를 탕감해 주었으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다른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친 베트남 성향을 지닌 훈센 총리의 집권 하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단기적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 낮음

- 경기회복으로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총수출 대비 외채상환액도 2010년 1.1%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1. 7)	D1 (2010. 10)
OECD	6등급 (2011. 3)	6등급 (2010. 4)
S&P	B+ (2007. 4)	-
Moody's	B2 (2011. 5)	-

\* 동국은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Euromoney: 118/186 (2011. 3) → 119/186 (2010. 3) → 152/186 (2010. 9)

II.: 117/178 (2009. 9) → 124/177 (2010. 9) → 132/177 (2011. 3)

- 캄보디아는 2007년까지 OECD로부터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부여받았으나, 2008년 4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전문가 회의에서 관광산업의 호조, 외채관련 지표의 개선, 점진적인 경제성장, 석유 생산 가능성 증가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위기에 따라 캄보디아 경제도 영향을 받았으나 국가신용등급은 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심각한 부정부패, 열악한 인프라,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정부의 외환관리가 어려움. 또한 오랜 내전과 정치 불안으로 금융 시스템 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인수불가
- 영국 ECGD: 제 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는 개별심사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7년 10월 30일 (북한과는 1964년 2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 (1964), 투자보장협정 (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 (2001), 문화협력협정 (200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캄보디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캄보디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294	273	333	섬유류, 중고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수 입	14	18	43	농·임·수산물, 섬유제품
합 계	308	291	376	

자료: 한국무역협회.

- 캄보디아와의 교역규모는 1997년 양국 수교 이후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대 캄보디아 상품수지 흑자가 1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2010년 대 캄보디아 수출은 3억 3,300만 달러, 수입은 4,345만 달러로 2억 8,955만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대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기준 부동산업,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584건, 16억 8,322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였음.

□ 제6위의 EDCF 지원대상국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EDCF 지원 현황은 2011년 6월말 기준 총 11건, 2,937억 원(승인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 6위 지원대상국임. 우리나라 정부는 캄보디아를 중점 지원 대상국에 편입시키며 KSP 사업을 확장하는 등 원조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VI. 종합 의견

- 캄보디아는 2005년 이후 의류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3년 동안 연평균 1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관광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등으로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 회복, 관광객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수출 관련 제조업의 성장세 지속으로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쌀 가격 및 유가의 급속한 하락과 건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달러 유입 감소 등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0.7%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 내수가 회복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를 기록하였음.
- 2008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역사상 첫 여당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훈센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세계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국민당의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인 캄보디아의 행정 권력에 대한 감독관리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이루어져 있고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추세에 있어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전문연구원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mailto:soonjaelee@koreaexim.go.kr)